Entertainment

페이, 19금 파격 뮤직비디오로 솔로 출격

걸그룹 미쓰에이에서 탈퇴한 가수 페이가 솔로로 데뷔하며 파격적인 뮤직비디오로 신고식을 치른다. 페이는 신곡 '괜찮아 괜찮아 판타지'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제작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섹시한 매력을 내세워 파격적인 콘셉트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예뉴스 스테이션

이영자 부친상…녹화 마치고 귀가 도중 '오열'

방송인 이영자(사진)가 아버지를 잃는 슬픔에 빠졌다. 이영자의 부친 이모(75)씨가 17일 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영자는 이날 밤 KBS 2TV '안녕하세요' 녹화를 마치고 귀가하던 도중 아버지의 타계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11시30분이다. 장지는 경기도 양평 무궁화공원 묘원이다. 한편 부친상을 당한 이영자를 돕기 위해 동료 홍진경은 18일 케이블채널 KBS 드라마의 '엄마는 고슴도치2' 진행을 대신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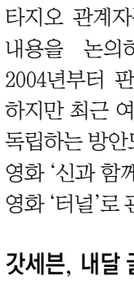
'성폭행 피소' 이진욱 "거짓말탐지기 응할 것"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뒤 상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배우 이진욱(35·사진)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할 뜻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두해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은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DNA가 나올 경우 이를 이진욱의 것과 대조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거짓말탐지기 등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A씨는 12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은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현빈·유지태·박성웅·배성우, 영화 '꾼' 캐스팅

배우 현빈과 유지태, 박성웅, 배성우가 영화 '꾼'으로 뭉쳤다. 배급사 쇼박스는 18일 "영화 '꾼'은 희대의 사기꾼을 잡으려고 엘리트 감사와 지능적인 사기꾼이 합심해 벌이는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현빈은 사기꾼만 골라 속이는 '지능형 사기꾼' 황지성 역을 맡았다. 최근 영화 '공조' 촬영을 마치고 곧바로 출연작을 확정했다. 유지태는 현빈과 손잡은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연기한다. 배성우는 이들의 작전에 합류하는 조력자로, 박성웅은 이들과 대립하는 인물로 출연한다. 하반기에 촬영을 시작하는 '꾼'은 내년 개봉 예정이다.

하정우, 전속계약 9월 종료…홀로서기도 검토



배우 하정우(사진)의 거취가 연예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하정우가 소속사 판타지오와 맺은 전속계약이 9월 종료되는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향후 하정우의 행보에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판타지오 관계자는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여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2004년부터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여러 도전을 염두에 두고 소속사에서 독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화 '신과 함께' 촬영에 한창인 하정우는 8월10일 영화 '터널'로 관객과 만난다.

갓세븐, 내달 글로벌 투어 서울 앙코르 콘서트

그룹 GOT7(갓세븐)이 8월 앙코르 콘서트를 펼친다.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와 오사카 등 아시아 및 미주 지역을 돌며 첫 글로벌 투어를 벌인 GOT7은 8월20일과 21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앙코르 콘서트 'FLY IN SEOUL-FINAL'(플라이 인 서울-파이널) 무대를 마련한다. 글로벌 투어의 시작과 마무리를 모두 서울에서 펼치며 국내 팬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다.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랭킹

7월 18일 기준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2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3	스톤에이지	Netmarble Games
4	검과 마법 for kakao	Longtu Korea Inc.
5	히트	NEXON Company
6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BANDAI NAMCO
7	프렌즈팝 for Kakao	NHN Pixelcube
8	천명	EFUN Company
9	뮤오리진	Webzen Inc.
10	MARVEL 퓨처파이트	Netmarble Games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재미 못 보면 끝이다…예능 서바이벌 시대

방송가 예능 물갈이 한창

SBS, 적자 프로그램 폐지·재단장 '꽃놀이패' 등 새 프로 잇따라 선봬 tvN '바벨 250' 등 파격 시도 화제

방송가에 때 아닌 예능프로그램 '물갈이'가 시작됐다.

봄과 가을,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방송사의 개편 시기도 아닌데도 각 방송사가 대대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지상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케이블채널, 종편채널 등 예외가 없다. 이에 따라 '리얼리티→오디션→육아→음악' 등 비슷한 포맷과 패턴이 이어지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예능프로그램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지 관심이 높다.

가장 크게 변화를 시도한 방송사는 SBS. 기존 두 편의 예능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편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SBS는 유재석과 김구라가 진행하는 '동상이몽'에 이어 최근 음악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보컬 전쟁-신의 목소리'를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스타킹'과 '오마이 베이비' 등 대표 프로그램도 재단장하거나 폐지를 논의 중이다. 광고 매출 하락으로 SBS의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5%나 감소한 만큼 제작비 대비 수익이 높지 않은, 이른바 '적자' 프로그램에 '칼'을 대겠다는 계획 탓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5~16일 이틀에 걸쳐 방송한 '꽃놀이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생방송 투표를 통해 연예인 6명의 운명을 시청자가 선택하는 여행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2회 모두 5%가량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어 17일부터 연이어 방송하는 '인생게임-상속자', '다시 쓰는 육아일기-미운 오리새끼', '디스코-셀프 디스 코믹클럽' '신의 직장' 등이 시청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파격적인 시도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케이블채널에서도 변화를 시작한다. 11일 첫 방송한 tvN '바벨 250'은 한국, 중국, 태국, 프랑스, 브라질 등 해외 7개국 청년들이 한국 남해의 시골에 모여 세계 공용어 '바벨어'를 만든다는 콘셉트다. 영어를 금지하고 자국의 언어로만 사용해 남다른 재미를 준다.

'먹고 자고 먹고'라는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과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온유, I.O.I 출신 걸그룹 다이아의 정채연 등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하며 현지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제목 그대로 '먹고, 자고, 먹는' 내용이다. 8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케이팝 스타와 전문 댄서가 한 팀을 이뤄 퍼포먼스 대결을 펼치는 '힛 더 스테이지'를 비롯해 이단옆차기, 신사동호랭이등 인기 프로듀서들이 의기투합해 걸그룹을 만드는 '서바이벌 모모랜드를 찾아서' 등이 대기 중이다.

MBC '라디오스타'의 '여성버전'을 표방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도 12일부터 첫 방송하며 KBS 2TV '언니들의 슬램덩크'등 최근 트렌드인 여성예능 프로그램의 뒤를 잇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이종석-김우빈, 우정과 경쟁 사이

'더블유' vs '함틋' 동시간대 경쟁 절친 한류스타 해외 대결도 눈길

연기자 이종석(왼쪽)과 '절친' 김우빈(오른쪽)이 펼치는 선의의 경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종석이 20일 첫 방송하는 MBC 수목드라마 '더블유'로 KBS 2TV '함부로 애틋하게'의 김우빈과 동시간대 시청률 경쟁에 나서는데 이어 두 사람이 해외에서도 우위를 가리기 위해 한 판 승부를 펼친다. 우선 이종석은 '더블유'를 통해 국내는 물론 대만 시청자와도 만난다. '더블유'는 대만 LTV가 한국과 함께 동시 방송을 시작해 중국의 최대 IT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동영상 사이트 QQ닷컴에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그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김우빈이 출연 중인 '함부로 애틋하게'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요우쿠가 동시 방영해 18일 현재 오전 10시까지 6451만6124건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두 드라마의 제작발표회는 중국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 '더블유'는 18일 텐센트가, '함부로 애틋하게'는 이미 요우쿠가 실황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더블유' 제작발표회 현장에는 국내외 180여개 매체 취재진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드러냈다. 중국어권의 관심이 본격적으로 더해지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종석은 지난해 '피노키오'로 요우쿠에서 한국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해 현지에서 차세대 한류스타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김우빈은 드라마 '상속자들'로 얼굴을 알리고 빠르게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다.

중국어권 팬들의 시선몰이에는 이종석이 현지 활동에 주력해 조금 유리하다는 평가다. '피노키오' 이후 2년 만의 드라마이자 첫 중국드라마 '비취연인'이 10월 절강 위성TV에서 방송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노키오'에서 인연을 맺은 연출자 조수원 PD의 중국 첫 웹드라마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에'에 카메오로도 출연해 아시아 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SBS '닥터스'

"박신혜, '닥터스' OST 불러 달라" 팬들 요청 봇물

참여 드라마 OST마다 좋은 반응 제작사 측 "진지하게 생각해볼 것"

연기자 박신혜가 팬들로부터 '이색 요청'을 받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박신혜가 주연하는 SBS 월화드라마 '닥터스'가 매회 시청률 상승세 속에 순항 중인 가운데 그에게 "드라마 OST를 불러 달라"는 팬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닥터스' OST는 어반자카파, 정엽, 윤하 등 발라드 가수들이 부른 삽입곡이 각종 음원사이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드라마와 함께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도 팬들은 드라마 제작사와 박신혜의 소속사는 물론 박신혜의 SNS를 통해 "OST에 참여할 계획이 없느냐" "노래를 불러 달라"며 끊임없는 문의와 요청을 해오고 있다. 최근 박신혜가 인터넷을 통해 진행한 개인방송에서도 OST와 관련한 팬들의 질문이 많았다. 당시 박신혜는 "부끄럽다"며 말을 아꼈다.

가수도 아닌 연기자에게 이 같은 이색 요청이 쏟아지는 이유는 그동안 박신혜가 출연한 모든 드라마에서 OST에 참여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음원 성적도 나쁘지 않았던 덕분이다. 박신혜는 2009년 '미남이시네요'를 시작으로 2011년 드라마 '넌 내게 반했어', 2013년 '이웃집 꽃미남' '상속자들' 그리고 2014년 '피노키오'에 이르는 출연작에서 OST에 참여해 드라마 인기에 한몫 거들었다.

예상치 못한 팬들의 요청에 제작사와 소속사 측은 고민에 빠졌다. 제작사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박신혜가 OST에 참여할 계획은 없다"면서 "박신혜의 연기와 드라마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다. 이제 드라마가 중반에 접어들어 추후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정파탄 결말? '아이가 다섯' 괴소문

기획 초기 시놉시스 인터넷 나돌아 제작사 측 "현재 진행과 많이 달라"

KBS 2TV 주말드라마 '아이가 다섯'(사진)이 뜬금없는 '괴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종영까지 10회를 남겨둔 '아이가 다섯'은 17일 방송한 44회까지 재혼가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기획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팬들 사이에서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담은 시놉시스가 화제를 모으면서도 괜한 걱정을 사고 있다.

현재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아다니고 있는 시놉시스에는 이상태(안재욱)와 안미정(소유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혼에 이르지만, 자녀 문제로 끝내 헤어진다고 설명돼 있다. 이별의 결정적인 이유로 이상태의 아들이 안미정의 아들로 인해 죽는다는 설정이다. 결국 재혼가정의 일상에 자녀들이 적응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본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현재 진행된 상황까지 드라마 속 두 가족은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양가의 반대 등 역경에 부딪혔지만 이겨내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동갑내기에 같은 반이고, 딸들 사이의 질투심으로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서서히 그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며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 과정 또한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하게 풀어가며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까지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종영을 앞두고 현재까지 전개 방향과는 전혀 다른 시놉시스의 내용에 시청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작사 에이스토리 관계자는 18일 "온라인에 공개된 시놉시스는 기획단계 초기에 작성된 내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이야기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